

정기총회 개최공고 · 1면
上洛臺 복원사업 완료 · 2면
孝悌 十九則 · 2면
각파 종친회 소식 · 3면
백범 김구선생 암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 4면

安東金氏大宗會報

제56호

서기 1997년(단기4329년) 4월 7일(월요일) 발행
서기 199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 (02)243-1073

■ 발행인: 안동김씨대중회 편집부/편집인: 金命會/인쇄인: 申興來 ■ 발행처: 安東金氏大宗會/우편번호 130-0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49/전화: (02)244-3717 팩스: (0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三一運動 78주년을 맞으며

올해로 3·1운동이 78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때의 愛國精神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깨워지리라 믿고 忠에 대한 定義를 밝혀보는 바이다.

忠의 정의

역사는 끊임없이 變貌, 發展하고 있다. 그러나 그 發展의 原動力은 언제나 인간의 슬기와 행위에 있으므로 역사는 결국 인간의 과거 決算書인 동시에 미래의 指針書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흰 옷을 崇尚하여 온 白衣民族으로 侵略을 모르고 다른 나라의 外侮만을 수없이 받아온 淳樸한 민족으로 반만년의 悠久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試鍊의 가시밭길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의 先祖들은 슬기와 투철한 愛國心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 수호와 국가 번영을 위하여 주신 수많은 殉國先烈들이 계셨으므로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다.

그 受難 중에도 가장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남겨준 1592년 임진왜란과 1910년 한일합방으로 우리 國權을 빼앗긴 뼈저린 日帝治下 36년간의 暗黒期와 1950년 同族相殘의 6·25, 그 慘憺한 현실들은 우리의 역사상 잊지 못할 큰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南北韓이 분단이 된 채 統一을 위한 前進努力이 계속되고 있는 때이다. 월남이 自由放縱하다가 나라를 잃고 유랑민족으로 떠도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敎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祖國이란 貴하고도 所重한 것, 조국이 없이는 내가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찾은지 52년, 祖國의 품안에서 바야흐로 民族中興과 祖國近代化와 先進祖國建設의 역사적 사명을 앞에 두고 보람찬 도약을 위하여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때다. 우리는 어느때보다 과거의 쓰라린 체험을 바르게 인식하고 비판, 검토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영광과 번영을 이룩해야 할 시점에 놓인 것이다.

민족의 盛衰는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조상들의 업을 되살리는 힘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左右된다. 언제나 나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의

百年大計를 위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자기의 所任을 다해야 할 것이다. 壬辰倭亂과 韓日合邦, 6·25 당시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 애국선열들의 愛國表象을 收錄하였는바, 그 憂國忠節 속에서 우리에게 조국의 소중한 自覺을 불러일으켜 주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슴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忠武公 李舜臣 將軍과 金時敏 將軍의 나라 사랑은 온 겨레의 鑑이 되고 있다.

忠과 誠은 眞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精誠을 바치고 眞心을 다하는 것으로 사랑과 존경을 內容으로 한 人間의 誠이기도 하다.

定款 개정

安東金氏大宗會 정관 제3장
제7조(任員) 제4항
副會長 2人을 3人으로 개정

대중회 運營委員會議 개최



3월 27일 오전 10시 대중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순에 따라 총무의 성원보고에 이어 국민의례와 始祖이하 列先祖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 회의안건 심의에 들어가 「안건 1」 會長 사표수리의 건에 대하여 斗會 부회장께서 회장 辭意에 대한 그동안 경과사를 설명하고 운영위원의 의견을 물어 여러 방면의 의견을 논하였으나 회장님의 바쁘신 사정을 이해하고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짓고 2안으로 후임회장 推戴件을 심의한 바 먼저 유능인사 몇 분을 천거하고 그분들 가운데서 대중회장을 맡아주실 분으로 압축한 바 部長判事를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계신 提學公派 相勲 賢宗을 推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다음 총무가 尋訪하여 受諾書를 받아 오도록 위임하였다.

다음 3, 4案은 總會 公告와 임원회의시 또 총회시까지의 대표자 명의를 대한 토의를 한 바 斗會 부회장을 職務代行으로 하여 총회시까지 직무대행을 맡아줄 것을 결의하였다. 다음엔 기타 토의에서 총렬공 위대 6대의 設壇設位件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이는 우선 位牌를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니 재실에 모시고 歲一祀를 봉향함이 좋겠다는 의견에 일치하고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고 하오 2시경 폐회하였다.

定期總會 開催公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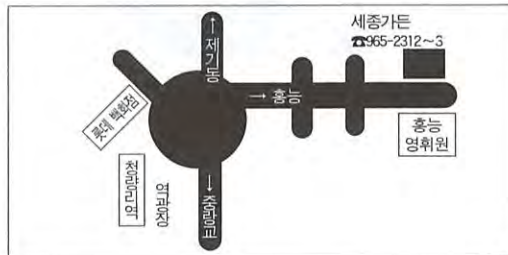
一九九七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隣近 宗親과 相互 連絡하시어 多數 參席하심을 要望합니다.

- 一, 日時: 一九九七年 五月 三日(土曜日) 午前 十一時
- 二, 場所: 흥릉 세종가든(영희원 건너편) 전화965-2312~3
- 三, 會議案件

- ① 定款 일부 改正
- ② 1996년도 決算報告
- ③ 1997년도 豫算審議
- ④ 會長再選의 件

四, 參考事項

〈약도〉



- 五, 會費: 壹萬五仟원 (通常會費 壹萬원, 總會費 五仟원)
當日 晝食 提供함.

1997년 4월 일

安東金氏大宗會
회장직무대행 김 두 회
부 회 장

孝經 十九則

孝經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주로 孝의 道를 가르친 것으로 天子의 章, 諸侯의 章, 卿大夫의 章, 士의 章, 庶人의 章이라는 식으로 封建制度 하의 모든 계급에 따라 각기의 孝道를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近代社會에서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孝라고 하는 變치 않는 人間의 道를 밝힌 점에서 意義가 깊다고 하겠다. 現代에 이르러 가족제도가 많은 變化를 가져 자연히 孝가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더욱 孝經의 말은 오늘날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孔子가 그의 제자 曾子에게 효에 대하여 한 말을 記錄한 冊에는 이런 말들이 있다.

1. 孝德之本也 教之所由生也라.

효는 德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근원이다. 孝는 인정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도덕의 근본이며 동시에 또한 교육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2.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

신체발부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이를 훼손치 않음은 효의 기초이다. 우리의 몸은 머리카락 한 오라기, 피부 한편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모로부터 받은 귀중한 것이므로 몸을 소중히 하고 추후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효행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3.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

에 빛내어 부모를 현양함은 효의 마지막 행위이다. 일신의 독립을 보전하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까지 빛내어 부모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다. 이것은 부모에게 효행하는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알보지 않는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남을 미워하면 그 결과로 반드시 부모에게까지 禍가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정이 두터운 사람은 자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경친의 경우도 부모를 깊이 공경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깔볼 수 있을까? 愛와 敬은 孝道의 근본인 것이다.

5. 在上不驕 高而不危.

위 자리에 있어 교만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라도 위태롭지 않다. 남의 뒷자리에서도 교만해지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6. 口無擇言 身無擇行이라.

할말과 안할 말을 가려 하고 일을 함에 있어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以孝事 君則忠이라.

효로써 군주를 섬기면 그것이 忠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면 그것이 곧 忠이 된다. 忠孝는 同一한 도덕적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효와 忠은 같은 의를 갖는다.

8. 治國者 不敢侮於 鰥寡.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감히 홀아비나 과부를 알보지 않는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내를 잃은 노인이나 남편을 잃은 부인 등 딱한 경우의 사람들, 즉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깔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9. 生則親 安之.

살아계실 동안은 부모를 편히 모신다. 부모가 존명 중에는 그들이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행이다.

10. 天地 之性 人爲貴라.

천지의 性 중에서 사람이 가장 存貴하다. 天地間에 性命을 받은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다.

11. 人之行 莫大於孝라.

사람의 행위에서 효보다 큰 것은 없다. 人間의 모든 행위 중에서 효보다 더 크고 중요한 행위는 없다.

12. 病則治其 憂.

부모가 병환 중에는 진정으로 걱정해야 한다. 부모가 아프실 때는 되도록 주의하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걱정을 해야 한다.

13. 五刑之屬三千 而罪 莫大於不孝라.

오형에 속한 것이 삼천에 달하나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 형벌의 수는 삼천에 달할 정도로 많으나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14. 移風易俗 莫善於樂 安上治民 莫善於禮라.

풍속을 고치는데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고 위를 받들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예보다 좋은 것이 없다. 풍속을 개선해 가려면 좋은 음악을 보급시키는 것 이상 좋은 수단은 없다. 또한 윗어른을 평안케 하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려면 禮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5. 事親孝故忠 可移於君이라.

부모를 섬기는 효심을 임금에게 옮기면 忠이 되고 부모를 잘 섬기어 효자일 경우 그 진심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랴? 고로 효는 곧 忠이요, 忠은 곧 효이다.

16. 父有爭子 則身陷於不義라.

父母에게 諫言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不義에 빠지지 않는다. 父親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이것을 다루며 간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父母도 不義에 빠지는 일이 없다.

17. 進思盡忠 退思補過.

나아가서는 忠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과오를 반성함을 보충하여 생각한다. 군자는 인군을 측근에서 모실 때는 忠, 즉 자기의 眞正을 다하려고 다짐하고 또한 퇴각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생각하며, 君子는 全心全力하여 인군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18. 孝子之 喪親也 服義不安聞樂 不樂食旨不甘이라.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아름다운 옷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珍味를 먹어도 맛을 모른다.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그것이 바로 人情이다.

19. 生事愛敬 死事哀感이라.

생전에 사랑과 공경을 다해서 섬긴다.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은 사랑과 존경으로 모시는 것이 효도이다.

경북경찰청장 光植賢宗 忠烈公山所 參拜



安東 常任齋有司 鳳洙 종친, 皆谷 宗親會 회장 英 植宗親, 光得宗親 등 10여명 종친들이 수행하여 제수를 올리고 告由를 드렸다. 이어 檜谷洞 竹州朴氏 할머님 塋墓를 참배하고 素山 爽敦宗親의

지난 3월 14일 금요일 경북 경찰청장 인 光植현종은 대구 종친회 임원진과

宗宅에 들러 宗人들과 歡談을 나누고 하오 5시경 歸路에 올랐다.

上洛臺 復元事業 완료



지난해 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上洛臺를 復元한 바 복원한 그 자리가 옛 상락대 자리가 아님이 그 마을

노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져 원 위치를 확인한 바 현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옛날 坐臺가 확인되어 금춘 3월 9일 원 자리로 옮겨 복원하였다.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TEL : 783-3166 FAX : 780-8478
783-3167 자택 : 552-5327
780-84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2층)

찬조자 명단(1997. 1. 21~ 3. 12)

(단위 : 만원)

派	姓名	金額	住 所
都	在浩	50	서울시
提	대현	2	충남 천안시
	남식	2	
	장수	5	제주도
按	사진	2	충북 괴산군
都	희재	2	경북 의성군
典	재청	3	대전광역시
開	석호	2	강원도 평창군
按	태두	2	강원도 삼척시
郡	재환	3	전북 김제면
翼	용신	2	전남 목포시

派	姓名	金額	住 所
都	태조	5	부산광역시
	영복	2	
翼	현일	2	서울시
	길섭	3	
	재각	2	
提	재일	3	서울시
	태룡	2	경남 밀양시
按	태성	3	경기도 파주시
提	성희	2	인천광역시
	춘희	2	경기도 고양시
	재학	3	
都	영목	3	서울시
	덕환	10	
郡	상희	2	전북 부안군

派	姓名	金額	住 所
	용희	5	
提	철호	5	서울시
翼	潤會	2	
	洙北	3	전북 임실군
郡	철성	5	전남 신안군
典	호식외2명	10	경기도 화성군
都	춘식	3	서울시
提	규태	3	강원도 원주시
	화승	2	
翼	윤희	2	경남 진주시
	영복	2	
	낙희	2	
	홍열	2	
按	원목	2	충남 청양군

派	姓名	金額	住 所
翼	태훈	3	충북 청주시
按	선진	2	경기도 동두천시
郡	옥남	2	대전광역시
	용희	5	
	태영	3	경기도 성남시
按	영철	3	서울시
都	찬희	2	대구광역시
按	용세	5	서울시
翼	수길	5	부산광역시
	재관	3	
	용진	2	경기도 안성군
提	규영	2	인천시

합 계 : 2,040,000원

按廉使公派 在京 參奉公孫花樹會 정기총회 신임 會長에 泰俊 종친

지난 2월 27일 종로5가 대화회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觀默 會長의 인사에 이어 96년도 會計 結算보고를 泰雲 總務가 한 뒤에 97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참봉공 6대손 諱相器 先祖께서 건립하신 老隱亭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老隱亭은 현재 天安市 향토보존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문화공보실에

에 상신 중이다. 다음은 임원개선에 들어가 신임회장으로 泰俊 宗親을 추천하여 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총무에는 聖會 종친이 맡기로 했다. 이어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회장 觀默 宗親과 총무 泰雲 宗親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두 종친께 감사패를 증정한 뒤 준비된 다과와 약주를 들며 덕담을 나누고 하오 9시 산회하였다.

三派 종친의 뜻모아 烈先祖 묘소 改修



密直司使公派, 開城尹公派, 郡事公派, 三派는 直系祖 忠烈公의 長子 諱愼 손자 諱承用, 曾孫 諱厚, 玄孫 諱七陽, 四代 墓所를 宗親들의 뜻을 모아 淨化事業을 推進하여 지난 가을 墓의 돌레석과 잔디 새로 입히기 작

업을 마쳐 先塋山所의 面貌를 갖추고 三派後孫들이 安慰를 告由하였다.

묘소 위치는 전남 康津郡 鵲川面 土馬里 南山이며 四代 享祀는 음력 3월 16일 春享祭를 奉行하고 있다.

書雲觀正公派 26회 정기총회 개최

97년 1월 25일 오전 11시 書雲觀正公派 제26회 정기총회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宗中會館에서 많은 종원이 참석하여 성대히 개최하였다. 회순에 따라 개회사를 시작으로 圭冕 총무이사 성원보고와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96년도 주요 사업실적 보고를 하였는데 그중 石陵世蹟國譯本 刊行事業 完遂의 일이었다. 책자가 分帙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사업에 성공을 한 일이며 잔여부수 70여권을 희망인사에게 분질코자 신청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교정과 인쇄 오자, 탈자의 正誤表를 완성하였기에 책자를 분질받으신 분들에게는 연락을 주시면 송부한다 하는 일

이다.

이어서 감사보고가 있던 다음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97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고, 기타 토의에 당면과제 몇 가지를 논의하고 폐회하였다.

春享祀日 案内

密直司使公派, 開城尹公派, 郡事公派 三派에서 奉享하는 烈先祖四位 春享祭日을 알려 드립니다. 後孫들의 많은 參禮를 勸하는 바입니다.

判書公諱 大提學公諱承用
平理公諱 厚 郡事公 諱七陽
場所: 全南 康津郡 鵲川面 土馬里 南山
日時: 毎年 陰 三月 十六日

都評議公派 泰東 종친의 子 大根 君의 鬪病에 救援을 바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난치병으로 여겨왔던 白血病으로 판명되어 死境을 헤매고 있어 종친들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忠烈公 25대손 泰東氏의 長男 大根君(26세, 경북대대학원 1년생)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인데, 얼마전 전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건강을 되찾아가는 성덕 바우만 군과 같은 경우처럼 大根君의 병도 현대의술로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평의공파 沙村青年會에서는 이 같은 딱한 처지에 놓인 大根君을 위해 종친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大根君 돕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종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한다.

▲安東金氏 都評議公派 沙村青年會
구좌번호: 705046-043230

翼元公派 同樞公宗會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 6일 翼元公派 同樞公宗會 제2차 정기총회를 익원공파회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식순에 따라 선조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俊會 회장의 인사에 이어 翼會 총무의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齋室 보수관계와 불법 매장한 묘지 타협건을 상정하여 一案인 재실보수는 宗財가 적어 보류키로하고 二案인 불법묘지에 관해서는 종친간의 일이므로 이를 법에까지 야기시킨다면 타인들이 우리 종회에 많은 욕이 뒤따를 것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서를 徵求하고 同樞公 시제봉행과 묘소 및 임야관리를 책임지게 하는 조건부 승락을 하기로 가결하여 즉석에서 각서를 받았다.

다음으로 임원 개선에 들어가 각과에서 전형위원을 1명씩 내어 그들로 하여금 임원을 선출케 하였는데 신임 회장에 현 대총회 理事인 榮俊 賢宗으로, 부회장에 在鎔, 翼會, 洪默, 俊植 賢宗을, 총무에는 在光 賢宗, 재무에는 仁鍾 賢宗, 감사는 先會, 容世 賢宗을 선출하고 만장일치 박수로 임원진을 歡迎하고 하오 3시경 산회하였다.

翼元公派 掌令公宗會 顯祖 墓所 진입로 개설 완료

부여 장령공종회에서 95년도 음 10월 1일 掌令公 諱湜 顯祖의 시제를 봉향하고 종회를 개최하여 묘소 진입로 개설사업을 제의하여 宗人들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고 기금조성 방법은 宗山에 자기 先祖考 묘소를 모신 종인들이 墓所 一基當 이십만원씩을 징수하고 세대당 오만원씩을 회비로 납부하며 그외 특별 찬조로 충당기로 방침을 세워 실전에 옮긴바, 총 오천 칠백여만원을 모금하여 96년 봄에 약

6백여미터를 2차선도로로 완공하고, 齋室 앞 전담을 매꾸어 주차장까지 개설하였다.

이 사업에 추진위원장을 맡은 先會 賢宗과 장령공 宗會長 俊會 賢宗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의 勞苦가 컸으며, 또한 공사추진위원장은 極力 協贊을 아끼지 않으신 종친의 崇祖精神에 感謝를 드리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記念碑에 獻誠金 芳名記를 刻銘하여 建立하였다.

축 승진

천안시청 가정복지과장 金喜順 종친



김희순 과장은 提學公派 栢田宗約所 소장이신 相國 賢宗의 장녀로 放通大學 家庭學科에 재학중이며, 다년간 천안시청 부녀계

장으로 있다가 1997년 2월 1일자로 事務官으로 昇進, 천안시청 가정복지과장에 보직되었다. 이는 우리 안동 김문에는 드문 일이어서 이를 찬양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약력

1968년 병천중학교 졸업
1971년 서울 청덕여자고등학교 졸업
1997년 현재 방송통신대학 2학년 재학중
1974년 천원군 보건소
1978년 천안시 사회과
1993년 천안시 사회환경국 부녀복지계장

新春의 새아침

긴-긴 침묵
힘찬 내발
소의 등을 타고
새 아침 서광이 트인다
얼었던 대지-
아지랑이 너울 너울
꿈을 그리며
온 누리에 굶주렸던 초목
이슬 맺혀 물 마시며
파릇한 잎 장단
화창한 꽃을 피워-
그 향기
별 나비 너울 춤추는
새 아침의 기상이라.

김성목(익원공파 18대손)
충북 괴산군 증평읍 송전동 601-5



96년형 에어컨

할인가격(전기종) 7회 무이자 판매
-종친 특별 상담-

삼성공조기기

대표 김재명
T424-0019(대)

익원공파 중곡동 김상목

지난호에서 계속

2) 암살계획의 실행

여러가지 정황과 증언을 고려할 때, 백범 암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8년말~1949년초라고 할 수 있다. 김학규의 증언(『血淚의 告白』)에 의하면 1948년 12월 20일경 만주 봉천에서 만나 알던 崔某라는 청년이 「서북청년단 내 김구선생 암살단이 생겼다」며 「주의하라」는 제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경고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김학규는 최 모라는 청년의 실없음을 생각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불길한 예조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이후 전개된 백범 암살계획은 안두희를 포함한 서북청년단의 일부가 한국독립당에 가입하면서 구체화된다. 이때 김지웅은 안두희에게 백범 암살의 당위성을 세뇌시키기 시작하고 1949년 6월 세번에 걸쳐 암살계획을 실행하였다.

서북청년단의 일부가 한국독립당에 가입을 주도한 것은 백운호(홍종만의 고백에 나오는 白雲鎬와 동일인인지는 분명치 않다)와 홍종만이었다. 1949년 1월 백운호는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를 찾아와 일주일간 머물면서 신세를 졌다. 백운호는 김학규가 만주 봉천에서 韓人 부대인 長延民主自衛軍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을 때 그 군대의 대원이었다. 10여일 후 백운호는 다시 김학규를 찾아와 당시 서북청년단 「태평로 사단장」이던 자신의 친구인 홍종만을 소개하면서 홍종만 등 서북청년단 청년들이 한국독립당에 가입하려고 한다며 이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학규는 서북청년단 태평로지부로 가서 이들 10여명의 입당식까지 거행해 주었다.

그후 김지웅과 홍종만은 안두희에게 한독당 가입을 권유했고, 홍종만이 안두희를 김학규에게 소개하면서

한독당 입당을 주선하였다. 그동안 홍종만과 안두희는 김학규를 불러내어 술대접을 하면서 김학규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으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학규 앞에서 안두희는 백범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는 등 명령만 내리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김학규와 김구를 존경하는 척했다. 결국 김학규는 안두희와 홍종만의 꾀에 빠져 이들의 암살음모를 모른 채 김구선생에게 안두희를 소개하였고, 안두희는 김구를 만나 속마음을 숨기면서 접근하기 시작했

당원증에 있는 문제의 「秘」자와 「군복을 입은 사진」이었다. 즉, 재판에서 안두희와 홍종만은 군인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독당은 비밀당원으로 특별히 관리하였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홍종만과 안두희는 김학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김구와 한독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안두희 재판과정에서 홍종만이 제출했다고 하는 일기가 바로 이 활동을 보고한 정답일기였던 것이다. 1949년 5월 중순 군산에서 열린 당원 단기강습회

건으로 어수선하였다. 5월 17~18일 서울시경의 崔雲霞 사찰과장이 주도하여 李龜洙, 崔泰奎, 李文源 의원 등이 검거되었다. 당시 국회 프락치사건은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헌병사령부에서 취급하고 있었는데, 노덕술, 최운하 등 친일경찰들이 헌병사령부에 파견되어 수사를 담당하였다. 6월 21일 金秉會, 金沃周, 22일 朴允源, 姜旭中, 黃潤鎬, 盧鎬煥 등이 검거되었다. 더욱이 6월 29일로 예정된 미군의 완전철수와 북한의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결성 시도로 정국은 총비상이었다.

백범 암살의 첫 시도는 국회 프락치사건의 2차 검거가 진행중인 6월 23일이었다. 이날 홍종만, 안두희, 오병순, 한경일, 강창걸, 독고녹성, 정익태, 한국상, 이춘익, 한봉수 등 모두 10명은 김약수 국회 부의장이 김구선생의 거소인 경교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핑계로 김약수를 체포하려는 명분으로 경교장을 습격하여 혼란의 와중에서 백범을 암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고, 김약수는 6월 25일 새벽 경교장이 아닌 종로구 운니동 金正業 여인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당시 장은산은 암살을 지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김지웅, 안두희, 홍종만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장은산을 만났다. 장은산은 6월 25일 김구선생과 공주에서 건국실천요원 양성소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 그 중간지점인 수원 병점고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습격하여 살해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출발 당일 새벽 공주경찰서장이 경교장에 전화하여, 행사개최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이 통보를 미처 모르던 암살자들은 현장까지 가 있었으나, 김구선생 일행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그 계획은 실패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백범 김구선생 암살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

국회의원 강 신 옥

던 것이다.

반면, 김학규는 자신의 고백에서 밝혔듯이 자신이 걸어온 길은 양심에서 살고 의리에서 죽는 독립운동뿐이었으며, 꾀불꾀불 권모술수, 잔재주 따위의 일은 모른다고 청교도와 같이 순진, 정직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간악한 小人之輩들이 자신의 순진성을 기화로 온갖 농락을 베풀어 급기야는 자기가 가장 공경하고 우리 동포가 가장 숭배 신임하는 김구선생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한국독립당을 때려부수기 위하여 조직부장인 자신을 열도당토 않는 구실을 꾸며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라고 『혈루의 고백』에서 밝히고 있다.

결국 안두희는 1949년 4월 14일자 한국독립당 당원증을 발급받았다. 이 당원증은 나중의 군법회의 재판에 제출되어, 안두희가 문제의 「비밀당원」으로 인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밀당원의 결정적 증거는

개강식에 김구선생 이하 한독당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홍종만은 김학규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하여 군산과 전주까지 가서 이들의 행동을 감시했으며, 며칠 후 예산에서 거행된 윤봉길 의사 비석 제막식에도 김구선생을 따라가 그 행적을 감시하였다. 5월 하순경 홍종만은 김학규를 찾아와 지리산으로 빠지신 운동이나 하러 가자는 허위와 악의에 찬 제안까지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홍종만과 안두희는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김구선생과 한독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김지웅, 김태선 시경국장, 장은산 포병사령관 등에게 보고하였다.

백범 암살은 6월말 세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949년 6월 전후의 국내정세를 우선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내의 정치정세는 국회 프락치사

동학접주 김형진과 백범 김구
다시 혼자 중국을 가다

〈전호에서 계속〉

당시 우리나라는 8월 20일(양 10월 8일)에 일본대사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테러행위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저곳 뜻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다 국내의 힘으로는 왜놈을 물리칠 길이 보이지 않자 다시 중국으로 가서 방도를 찾기로 했다. 이런 계획을 알게 된 백범의 재종조(再從祖)는 안악에 사는 최창조(崔昌祚)를 찾아가 설득했다. 그가 청동 백

여냥을 선뜻 내놓아 1895년 가을인 9월 12일에 다시 길을 떠났다. 안악에서 배편으로 용강에 갔다가 평양→안주에 도착했다.

동행하던 백범이 중국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이때 삼남에서 의병활동이 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간 것이다. 혼자가 된 김형진은 초지일관 청천강을 건너 영변→태천→구성→삭주를 거쳐 강변에 이르러 의주

로 내려갔다. 야밤에 도강하여 구룡성에 도착하니 9월 21일이었다. 다시 수일을 걸어서 심양에 도착하니 관동(關東) 연왕(燕王)인 이극강아(李克康阿)의 휘하 군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를 유람한 인사들을 많이 만났으며 강서 최연순(崔連尊), 해주 김성찬(金聖贊)과 더불어 연왕에게 글을 올리게 됐다. 요지는 “조선의 전라도 참의 유생인 저희들은 백배하며 글을 올립니다”라 하여 자신들이 전라도에서 창 의한 동학혁명군임을 밝혔다. 그리고 “지금 나라 형편은 갑신(甲申) 반적 사흉(四凶)인 박영효(朴泳孝)와

서광범(徐光範) 등이 대역을 저지르며, 왜적과 싸우는 자는 비류(匪類)라 하고 왜적에게 붙는 자는 충량(忠良)이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선과 왜놈은 불구대천의 원수로서 저희들은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 왜병과 수십차례 접전하여 놈들을 살해했으나 양도가 끊기고 병기가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하여 황해도에서 항쟁했음을 밝혔다. 끝으로 “추수가 끝나는 금년 가을은 의거할 때이니 저희들은 조선에 돌아가 병법대로 예리한 곳은 피하고 게으른 곳을 치는 전법으로 싸우겠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の歴史と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 등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 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機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 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 以上 領軌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 支社 開設

서울 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 支社를 開設하였습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 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시기 바랍니다.

族譜出版의元祖



本 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3, 256-1263
FAX (042) 253-9891 自宅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回想社
族譜古書 出版製所